

나주 원항배 110t 올 첫 미국 수출길

970만달러 규모...수출 선적 행사를 6000만달러 수출 목표 첫 발 나주배 작황 호조 추석 공급 원활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 나주에서 생산한 햇배가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나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출 선과장에서 나주배원에농업협동조합과 '원항배' 미국 수출 선적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선적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진중문 농협무역 대표, 이동희 배원에농협조합장, 이재남 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원항배는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은 조생종으로 신고배와 더불어 나주배를 대표하는 품종이다.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이 지난 13일 나주시 부덕동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출선과장에서 수출배 선과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올해 6000t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첫 선적된 원항배는 컨테이너 8대 분량 약 110t 규모다. 나주시는 지난해 나주배 수출 역사상 가장 많은 5256t을 수출해 1543만 달러(약 218억원)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대미 수출은 2220t으로 전체 수출 물량의 42%를 점유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5월 산홍 수출시장 개척단을 이끌고 5박 7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해 4개 업체와 970만달러 규모의 농수축산물 수

출협약을 이끌어 냈다. 오는 11월에는 북미 캐나다를 방문해 시장 개척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올 추석 성수기 나주배 공급은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작황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3만7756t보다 6200여 t 늘어난 4만4000여 t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해보다 추석이 2주 정도 빨라 수출 일정이 앞당겨졌음에도 고품질 배 생산에 힘써준 농가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주배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 전문단지 육성과 계약출하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구북구 화순군수와 LG유플러스 허남경 CXM담당, NICE지니 데이터 김민수 대표이사, 티브릿지코퍼레이션 박해성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데이터 기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나선다

LG유플러스 등 3곳과 업무협약

화순군이 국내 데이터 관련 기업 3곳과 '도시데이터 기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북구 화순군수와 LG유플러스 허남경 CXM담당, NICE지니데이터 김민수 대표이사, 티브릿지코퍼레이션 박해성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 발굴과

정책 협조에 나서고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인구데이터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NICE지니데이터는 소비·구매 물품 데이터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은 설문조사 수행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데이터 기업 3사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화순군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젊은 아이디어 군정에...담양군 '혁신 주니어보드' 떴다

임용 7년 이하 공무원 39명 군정 혁신 제안 등 활동 개시

담양군의 혁신 주니어보드가 군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담양군은 지난 14일 군청 면양정실에서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사진)을 가졌다고 밝혔다. 7년 이하 공직자 총 39명, 8팀으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보드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세대 간 소통과 수평적 의사결정의 장을 마련하고, 군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다지는 연구모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특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앞으로 5개월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효율성 강화, 부서간 협업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발굴



하고 제안하게 된다. 혁신 주니어보드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에 제안해 군정 혁신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며 연말에는 연구결과 심사를 통해 시상금과 특전도 지급할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이병노 담양군수는 "현재 군청 공무원 중 7년 차 이하가 40%를 차지하는 만큼, 젊은 공직자들의 역할과 생각이 반영된 혁신이 필요하다"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군정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 등산로 19개소 85km 구간 정비

장성군이 제봉산·축령산·불태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한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이용객들의 발길이 집중되고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등산로 19개소 85.2km 구간을 정비

하며 이달 말까지 시설 보수와 등산로변 풀베기 작업 등을 시행한다. 제봉산 등산로는 데크 계단 철거, 로프 펜스 교체, 야생화단지 정비 등을 통해 아름다운 볼거리와 안전한 산림 환경을 제공할 계획

이다. 사계절 꾸준한 산행이 이어지는 축령산 등산로는 낡은 나무계단을 교체하고 로프 펜스를 새로 설치해 안전도를 높인다. 광주시와 가까운 진원면 불태산은 외지 방문객 비중이 높은 만큼 산행객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과 이정표를 정비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결식아동 도시락 1만400개 지원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

함평군이 행복알라이언스와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행복나래 임은미 실장,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최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함평군과 행복알라이언스 회원사, 기타 사회적기업이 협력해 급식 지원이 필요한 지역 아동 40명에게 1년 동안 1만400식의 밀

반찬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알라이언스는 121개 기업, 90개 지방정부, 42만명의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연합공동체다. 행복나래는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이익금 전액을 공익적 사회가치 창출에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이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